

“항쟁의 역사 속 광주·부산·대구는 하나”

전남대 김상봉 교수 신간 ‘철학의 현정...5·18’ 펴내

5·18은 대구 ‘전태일’과 부마항쟁이 부활한 사건 ‘광주’만의 틀 벗어나 시대·지역 넘어 세계로 나아가

“우리의 민주항쟁 역사 속에서 광주 5·18은 79년 ‘부마(부산·마산)항쟁’와 무시건장 시작과 끝으로 마주보고 있다. 또한 80년 광주는 시간을 뛰어넘는 영속적인 완성의 이념이 되었다.”

전남대 철학과 김상봉 교수가 5·18의 철학적 관점을 담은 ‘철학의 현정-5·18을 생각함’(도서출판 길)을 펴냈다. 김 교수는 이번 저서에서 80년 광주 5·18을 79년 부마항쟁과 70년 ‘전태일 분신사건’을 연계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지금까지 5·18은 대부분 사회과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돼 왔고 문학, 미술, 공연 등 다양한 작품과 문화로 형상화되었던 게 사실이다. 이번 책은 김 교수가 광주의 오월을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조망한 것으로 5·18에 대한 철학적 현사로 읽힌다.

김 교수는 “광주 5·18과 부마항쟁 시원(始原)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의 기록체가 되었던 70년 전태일분신사건”이라고 말한다. 대구 출신 전태일이 70년 서울 평화시장에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고 외치며 산화한 것은 도도

한 역사 속에서 5·18의 정신과 합일되는 사원이라는 것이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광주와 부산, 대구는 현대사의 질곡에서 따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대구 전태일’의 눈물이 부산에 이어 광주에서 부활했고, 광주는 민주항쟁의 완성태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5·18은 부산과 마산 앞바다에 고인 슬픔의 눈물에서 잉태된 진리의 빛이 광주에서 불꽃으로 터져 나온 사건이다. 우리 역사는 본질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부산 앞바다와 광주의 무등산 사이에서 운동한다. 부산과 마산의 눈물이 광주에서 불꽃으로 피어올랐다면, 영산강을 따라 바다로 흐른 광주의 피 눈물은 다시 부산 앞바다에 고이게 마련이다.”

김 교수가 이번에 책을 발간한 이유는 지금까지 5·18이 너무 고립돼 있었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해석’이 고립돼 있었다고 설명한다. 철학적인 맥락 속에서 광주 정신과 공동체성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지나치게 광주라는 틀에 얽매어



있었지 않나 싶은 것이다.

그가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같은 해석과 관점은 보편성과 아울러 확장 가능성을 열어준다. 무엇보다 실천적 지식인으로 살아온 그의 삶의 이력을 아는 이들이라면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5·18을 모욕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은 아무리 죽어도 또 죽어도 5·18은 죽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의 빛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진리를 모욕하고 다시 그 심장에 못을 박음으로써 진리를 매장하려 한다. 그러나 아무리 대검으로 찌르고, 총알로 뚫어도 진리는 죽지 않는다.”

김 교수는 “도대체 광주가 무슨 죄가



있는가”라고 물으며 “광주는 역사 속의 꽃”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면서 그는 “살아있는 자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던 그들의 총소리, 관 뚜껑 위에 못질하는 망치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은 진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고 덧붙인다.

그의 주장은 광주의 5·18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세력이 여전히 많은 상황 속에서 철학적 인식의 근거와 역사적 의미를 제공한다. 5·18에 대한 사유와 인식이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는 이유다.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종교(신학적 관점)라는 경계도 뛰어넘는다.

“역사는 광주의 희생에 대해 송고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안팎으로 여전히 ‘염증’을 느끼는 이들도 많다.(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 시절의 순수함이 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더 이상 5·18이 고립되거나 유폐되어서는 안 된다. 시대와 역사, 지역, 종교를 넘어 전국화와 세계화로 나아가야 한다.”

“역사는 광주의 희생에 대해 송고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안팎으로 여전히 ‘염증’을 느끼는 이들도 많다.(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 시절의 순수함이 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더 이상 5·18이 고립되거나 유폐되어서는 안 된다. 시대와 역사, 지역, 종교를 넘어 전국화와 세계화로 나아가야 한다.”

김 교수는 “도대체 광주가 무슨 죄가 있었지 않나 싶은 것이다. 그가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같은 해석과 관점은 보편성과 아울러 확장 가능성을 열어준다. 무엇보다 실천적 지식인으로 살아온 그의 삶의 이력을 아는 이들이라면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5·18을 모욕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은 아무리 죽어도 또 죽어도 5·18은 죽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의 빛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진리를 모욕하고 다시 그 심장에 못을 박음으로써 진리를 매장하려 한다. 그러나 아무리 대검으로 찌르고, 총알로 뚫어도 진리는 죽지 않는다.” 김 교수는 “도대체 광주가 무슨 죄가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있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완구·홍준표 이르면 내주 기소

검찰, 혐의 입증 진술·증거 확보...‘咸 리스트’ 6인 수사 착수

‘성완중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이어 14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소환하면서 두 사람의 사법처리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검찰은 사건의 사회·정치적 파장, 국민적 관심 등을 염두에 두고 두 사람의 신병처리 방향과 처벌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리스트 8인 가운데 금품수수 혐의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두 사람에게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혐의를 뒷받침할 상당량의 진술과 정황 증거도 확보했다. 기소 시점은 다소 유동적이다. 가장 큰 변수는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처벌 대상에 오른 홍 지사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 청구 기준이 2억원이라는 점을 들어 홍 지사의 영장 청구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우세하다.

검찰이 홍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으면 다음 주중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일괄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 ‘저축은행 비리’ 등과 같이 고위 공직자들이 다수 연루된 대형 사건을 수사할 때 혐의가 인정된 이들을

비슷한 시점에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해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 속전속결로 두 사람을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 전 총리의 경우 이날 소환조사 결과에 따라 그의 측근들에 대한 보강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홍 지사 의혹도 공판에 대비한 증거 보강작업에 시간이 필요하다. 검찰 관계자는 “공여자가 없고 당사자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사건 특성상 법적 공방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보강 수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이번 주 홍 지사의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영장이 기각되면 다음 주 동시 기소될 공산이 크지만 영장이 발부되면 이 전 총리가 먼저 재판이 넘겨지고 홍 지사는 구속 기간(최대 20일) 만료와 동시에 기소될 수 있다.

한편에서는 검찰이 나머지 리스트 6인에 대한 수사를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가면서 두 인사를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

10년째 조림사업... 고비사막 ‘저 푸른 초원’ 꿈꾼다

한·몽골 그린벨트 1차 사업 내년까지 3000ha 조성 완료

한국단체 캠페인에 몽골도 식목일 지정 나무심기 앞장

사막화에 신음하는 몽골

희망을 심다

몽골 고비사막=박지경 기자

국회의원 연구모임 ‘나무 심는 사람들’(대표의원·강기정)과 (사)‘나무 심는 사람들’, 롯데백화점 직원 등 50여명은 지난 8~9일 황사의 발원지 고비사막의 남쪽 관문인 발란자가드와 비양작에서 몽골사막화 방지를 위한 나무심기 행사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완주·이원욱·김현·권은희 의원을 비롯해 (사)나무 심는 사

람들 정희곤 이사장, 롯데백화점 김성경 부장 등이 참석, 세찬 바람과 함께 날리는 흙먼지 속에 희망의 나무를 심었다.

이 식목행사는 몽골나눔프로젝트의 일환인 한·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의 공식 이벤트 중 하나로 우리 산림청과 나무 심는 사람들의 주관으로 이뤄지고 있다. 행사 참가자 일행은 8일엔 산림청이 만든 발란자가드 조림지에 비솔나무 800그루를 심었다. 그리고 다음날엔 비양작 조림지로 이동, 짝사슴 600그루 묘목을 심었다. 이 외에도 산림청 조림지는 문송에도 있다고 한다.

산림청이 지난 200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한·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의 지

난해까지 실적은 1946ha. 올해 500ha, 내년엔 600ha에 나무를 심으면 1차 사업 목표인 3000ha 조림지 조성이 끝난다.

나무 심는 사람들 외에도 푸른아시아·롯데백화점·유한김벌리·대구은행·고양·수원 등 수십 개 자치단체·민간단체·기업이 몽골에 나무 심기를 하고 있어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다.

한국인이 몽골에 나무 심기를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반경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의 사후 관리를 하지 않아 대부분 나무가 죽었다. 산림청이 본격적으로 나무 심기를 시작한 2008년에도 절반에 가까운 나무가 죽었다. 하지만, 산림청이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관리해 주면서 활착률(생존율)이 2009년 70%, 2010년 89%, 2013년 96.1%까지 올라갔다. /jkpark@kwangju.co.kr

산림청은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 외에도 20ha 규모의 양묘장 2개소를 조성했으며 조림기술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연수생 초청교육도 하고 있다.

몽골인들은 원래 유목민족인 탓에 나무의 소중함을 별로 모른다고 한다. 그러나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그 와중에 한국인들이 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직접 시범을 보이자 서서히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 2012년부터 몽골 나무 심기 행사를 주도해온 강기정 의원은 “얼마 전부터 몽골 정부는 일 년에 두 차례(5월 둘째 주 토요일, 10월 둘째 주 토요일) 식목일을 정해서 나무심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주민 인식이 바뀌면서 나무를 심어달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2의 자원 대신 1의 나무’라는 구호까지 생겼다”고 전했다. /jkpark@kwangju.co.kr

의료광고 심의필 제 141205-중-65758호

밝은광주안과 의원

진료내용

라식 라섹 ICL SMILE

LASIK LASEK 안내렌즈삽입술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수술

SMILE 수술이란?
라식수술시 만들게 되는 각막절편을 만들지 않고, 2mm의 최소절개를 통해 각막을 제거하는 신개념 수술입니다. 라식수술로 생길 수 있는 안구건조증을 최소화하고 각막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시력교정수술입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 빌딩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운암동 광안
밝은광주안과 의원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보조금사기·금융사기 / 성폭행·성추행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상담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신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장)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2015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전망과
전라남도 미래가치 분석**

현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낱알이 밝히고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부동산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장 소	NC백화점(구. 현대) (10층 문화센터)
일 시	2015. 5. 19(화) 오후 2시/7시
문의전화	(062)383-1330(사전 예약)

강/의/내/용

1. 광주·전남 개발 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자처 매물 분석 및 공개
2. 15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 및 투자전략 대응
3. 부동산 가격상승 핵심지역 분석
4. 돈되는 부동산 투자법 공개
- 가장 미래가치가 있는 땅은 무엇인가?
5. 소액투자자 월세받는 비법 공개
6. 실물투자(금·외환투자·원자재) 투자성공법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자 전문가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 관공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메이 인터넬신문 칼럼 게재중

NAVER 영지R&D부동산투자연구소